

행위 문장과 부사어

송하석(아주대학교)

제목: 행위문장과 부사어

영문 제목: Action Sentences and the Adverbials

【요약문】 이 논문은 부사어에 의해서 수식되는 행위 문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데이빗슨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데이빗슨은 행위 문장이 부사어에 수식될 때, 그 문장은 원래의 행위 문장에 의해서 함축됨을 보일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데 착안하여 자신의 사건 존재론을 근거로 행위 문장을 사건을 양화하는 문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데이빗슨 자신이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행위 문장이 양화하는 사건이 문장 전체가 아닌 일부가 가리킨다는 반직관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 불만스럽다. 그러나 무엇보다 데이빗슨의 해석이 갖는 문제점은 행위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용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바와이즈와 페리에 의해서 제시된 상황 존재론에 의거하여 다양한 부사어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부사어에 의해서 수식되는 행위 문장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주제어】 데이빗슨, 페리, 사건, 상황, 부사어의 의미론

I. 들어가는 말

행위를 기술하는 문장과 그 문장이 기술하는 행위 사이의 관계가 부사어로 수식될 때, 그 문장은 어떻게 의미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즉 부사어에 의해서 수식되는 행위 문장은 어떤 의미론적 구조를 갖는다고 해석되어야 하는가? 부사어의 의미론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술어 연산자 이론(predicate operator theory)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사어는 하나의 술어를 논항(argument)으로 취해서 다른 술어를 함수값으로 만들어내는 연산자라고 해석된다. 이런 입장은 몬태규(R. Montague), 루이스(D. Lewis), 그리고 마틴(R. Martin)에 의해서 지지되었다.⁷³⁾

그런데 데이빗슨(D. Davidson)은 1968년 발표한 “행위 문장의 논리적 형식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이라는 논문에서 부사어에 대한 술어 연산자 이론을 거부하고, 그의 사건 존재론(event ontology)에 입각하여 부사어를 사건에 대한 술어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바와이즈(J. Barwise)와 페리(J. Perry)에 의해서 1983년 처음 출간되고, 1999년 수정되어 출간된 <상황과 해석 Situations and Attitudes>은 행위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에 대한 데이빗슨의 해석을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제시한 상황 의미론(situation semantics)은 상황 존재론(situation ontology)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존재론을 받아들일 경우, 사건 존재론에 근거하고 있는 데이빗슨의 해석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페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출간되지 않은 그의 논문 “행위에 있어서의 상황(Situations in Actions)”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행위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의미론적 역할에 대한 데이빗슨의 해석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데이빗슨이 전통적인 술어 연산자 이론을 거부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이유와 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비판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2절). 그 결과 우리는 사건 존재론에 토대한 부사어에 대한 데이빗슨의 해석보다는 최근 파슨즈(T. Parsons)에 의해서 제시된 해석이 보다 더 설득력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데이빗슨의 해석은 직관적이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사어의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지 않으므로써 생긴 불완전한 이론임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와이즈와 페리의 상황 존재론을 토대로 행위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여러 가지 용법을 해석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봄으로써, 데이빗슨의 해석에 대한 평가를 해 볼 것이다(3절).

II. 데이빗슨의 해석

데이빗슨이 부사어에 대한 전통적인 술어 연산자 이론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이론이 다음 두 문장 사이에 분명하게 성립한다고 믿어지는 함축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3) R. Montague (1974)와 D. Lewis (1975) 그리고 R. Martin (1993) 참조. 이 글의 목적은 부사어에 대한 술어 연산자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 이론에 대한 매우 간단하면서 명료한 설명은 Martin의 118-121쪽에 나와 있다.

- (1) 존스는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다(Jones buttered the toast).
- (2) 존스는 욕실에서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다
(Jones buttered the toast in the bathroom).

우리는 직관적으로 (2)가 (1)을 함축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술어 연산자 이론이 제공하는 분석은 이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데이빗슨이 이 이론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불만이었다. 즉 술어 연산자 이론에 따라 (1)과 (2)를 시제를 무시하고 분석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1') Butter(Jones, the toast)
- (2') In the bathroom[Butter(Jonse, the toast)]

그런 의미에서 술어 연산자 이론은 (2')이 (1')을 함축함을 명백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이빗슨의 불만은 옳아 보인다.⁷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버터를 바르다'라는 동사에 사건이라는 숨어있는 논항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사건이란 시, 공간상의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반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건 존재론에 입각하여 그는 의미론이란 언어와 실재(reality)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하며, 이 설명을 통해서 의미론은 실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의미론은 행위 문장이나 인과적 진술에 관한 의미론적, 논리적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을 존재론적으로 요청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의 핵심이다.

이제 그의 사건 존재론에 근거한 행위 문장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자. 그는 위 두 문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74) 그러나 부사어로 수식되는 모든 행위 문장이 부사어가 없는 행위 문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돌이가 아마 철이를 찼다(Probably Dori kicked Chori)"는 "돌이는 철이를 찼다(Dori kicked Chori)"를 함축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론적 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데이빗슨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D. Davidson(1981), 122쪽 이하 참조.

(1") 존스가 버터를 바른 사건이 있었다.

($\exists x$)[Butter(Jones, the toast, x)]

(2") 존스가 버터를 바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욕실에서 발생했다.

($\exists x$)[Butter(Jones, the toast, x) & In(the bathroom, x)]

이렇게 행위 문장을 사건을 양화하는 문장으로 해석하면, (2")이 (1")을 함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데이빗슨의 주장이다.

그런데 데이빗슨처럼 (2)와 (1)을 각각 (2')와 (1')로 해석하는 것이 (2)로부터 (1)이 추론됨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이 추론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추론에는 '존이 욕실에서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다면 존이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다'는 자명하게 참인 전제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추론에 숨은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데이빗슨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그 추론이 타당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빗슨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아마 숨은 전제에 의존해서 그 추론의 타당성을 보이려는 시도는 설명해야 할 사실을 당연한 가정으로 여기는 일종의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데이빗슨이 그렇게 응답한다면 그 응답은 옳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데이빗슨의 해석은 숨은 전제에 의존해서 그 추론의 타당성을 보이려는 시도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바로 그 전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숨은 전제에 의존하는 해석보다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이유로 데이빗슨의 해석이 보다 설득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데이빗슨의 해석이 만족스럽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해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문장들을 생각해 보자.

(2a) 존은 무엇인가를 했다 (John did something).

(2b) 무엇인가가 토스트에 대해서 행해졌다 (Something was done to the toast).

(2c) 버터를 바름이 있었다 (There was a buttering).

이 문장들은 각각 (2)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된다. 그러나 데이빗슨의 해석은 그 추론들의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2)로부터 (2c)의 추론을 생각해 보자. 데이빗슨은 아마 (2c)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것에 버터를 바름이 있었다”의 생략형이고 (2c)를 그렇게 이해하면 (2)로부터 (2c)로의 추론의 타당성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2c)는 이렇게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2)로부터 (2a)와 (2b)로의 추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추론의 타당성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추론에 숨은 전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일 것이다. 즉 (2)로부터 (2a)로의 추론에는 “존이 버터를 발랐다면, 존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자명하게 참인 숨은 전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일반화해서 이 추론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숨어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forall x)(\forall y)(\forall z)\{Buttering(x, y, z) \rightarrow Done\text{-}by(x, y)\}$$

마찬가지로 (2)로부터 (2b)로의 추론에는

$$(\forall x)(\forall y)(\forall z)\{Buttering(x, y, z) \rightarrow Done\text{-}to(x, z)\}$$

가 숨은 전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빗슨의 해석은 이러한 숨은 전제들의 참을 명료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스럽다. 이에 대해서 파슨즈(T. Parsons)는 데이빗슨의 해석을 발전시켜 (2)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자고 제안한다.⁷⁵⁾

$$(2^*) (\exists x)(Buttering(x) \ \& \ to(x, \text{the toast}) \ \& \ Agent(x, \text{John}))$$

(2*)는 “버터를 바름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은 그 토스트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사건의 행위자는 존이다”는 문장을 기호화한 것이다. 파슨즈처럼 (2)를 (2*)로 분석할 경우, (2a)와 (2b)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것이기 때문에 (2)로부터 (2a)-(2c)의 추론의 타당성을 보일 수 있다.

75) Parsons (1990), 135쪽 이하.

(2a*) $(\exists x)(\text{Agent}(x, \text{John}))$ (2b*) $(\exists x)(\text{To}(x, \text{the toast}))$ (2c*) $(\exists x)(\text{Buttering}(x))^{76)}$

데이빗슨의 해석의 동기가 (2)가 (1)을 함축함을 논리적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의 분석이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분명 불만스러운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사어로 수식되는 행위문장을 사건을 양화하는 문장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데이빗슨의 해석보다는 파슨즈의 수정된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음에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부사어로 수식되는 행위 문장에 대한 데이빗슨의 해석은 반직관적인 면을 갖는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했음을 기술하고 있는 문장에서 무엇이 그 사건이 발생했음을 말해주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문장 전체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대답일 것이다. 그 문장의 한 부분인 주어는 존스를 가리키고 다른 부분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주며, 그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빗슨은 그 문장의 일부분이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는 점에서 반직관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데이빗슨의 해석이 반직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페리는 문장이 사건을 기술한다는 데에서는 데이빗슨에 동의하지만, 그는 사건이 문장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의해서 기술된다고 보는 데이빗슨의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오히려 문장에 의해서 기술되는 사건은 그 문장 전체에 의해서 기술된다고 주장한다.⁷⁷⁾

데이빗슨은 앞에서 언급한 그의 논문에서 문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라이헨바흐(H. Reichenbach)의 해석을 비판한 바 있다. 라이헨바흐도 행위 문장을 사건을 양화하는 문장으로 해석하여 한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지만, 그는 문장 전체가 그 사건을, 정확히는 그 사건의 발

76) (2a*)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행위자는 존이다"는 것이고, (2b*)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토스트에 대해서 행해진 것이다"는 것이며, (2c*)는 "버터를 바름이라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77) J. Perry (1983) 2쪽. 이에 대한 설명은 R. Moore (1995) 161쪽에서 재인용함.

생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⁷⁸⁾ 즉, 라이헨바하는 다음 두 문장이 논리적 동치라고 주장한다.

- (3) 아문젠은 북극으로 비행했다(Amunsen flew to the North pole).
- (3') $(\exists x)(x$ 는 아문젠이 북극으로 비행했다는 사실에 있다).
- $(\exists x)(x$ consists in the fact that Amunsen flew to the North pole).

라이헨바하는 부사어로 수식되는 행위 문장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해석한다. 즉,

- (4) 아문젠은 1926년 5월에 북극으로 비행했다.
- (4') $(\exists x)(x$ 는 아문젠이 북극으로 비행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x 는 1926년 5월에 발생했다.)

라이헨바하의 이 분석은 (4)가 (3)을 함축함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슨은 이러한 해석이 논리적인 문제점을 갖는다고 비판한다. 데이빗슨의 비판을 간단히 살펴보자. 아래의 (5)와 (6)으로부터 (7)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즉,

- (5) $(\exists x)(x$ 는 내가 우주선을 타고 새벽로 날아갔다는 사실에 있다).
- (6) 새벽(the morning star) = 저녁별(the evening star)
- \therefore (7) $(\exists x)(x$ 는 내가 우주선을 타고 저녁별로 날아갔다는 사실에 있다).

데이빗슨은 이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칙은 다음이라고 주장한다⁷⁹⁾:

- (8) $(\forall x)(x$ 는 S라는 사실에 있다 $\leftrightarrow x$ 는 S'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 정식에서 S'는 S로부터 공지시적 단칭용어(co-referring singular term)를 대체하여 얻어진다. 분명히 (7)은 전제 (5)와 (6) 그리고 (8)로부터 타당하게 얻어진다. 그러나 데이빗슨은 이 추론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즉

78) H. Reichenbach (1947), 48절.

79) D. Davidson, (1980), 118쪽.

92 논리연구 7집 1호

'S'는 ' $\hat{y}(y = y \ \& \ S) = \hat{y}(y = y)$ '와 논리적으로 동치이기 때문에 다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 (\forall x)(x \text{는 } S \text{라는 사실에 있다} \leftrightarrow x \text{는 } (\hat{y}(y = y \ \& \ S) = \hat{y}(y = y)) \text{라는 사실에 있다})$$

계속해서 그는 'R'을 'S'와 실질적으로 동치인(materially equivalent) 문장이라고 하면, $\hat{y}(y = y \ \& \ S)$ 와 $\hat{y}(y = y \ \& \ R)$ 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공지시적 용어이다. 그러므로 다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10) (\forall x)(x \text{는 } S \text{라는 사실에 있다} \leftrightarrow x \text{는 } (\hat{y}(y = y \ \& \ R) = \hat{y}(y = y)) \text{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10)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11) (\forall x)(x \text{는 } S \text{라는 사실에 있다} \leftrightarrow x \text{는 } R \text{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11)이 말하는 바는 발생한 모든 사건은 동일하다는 것이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다. 결국 데이빗슨에 따르면, 이러한 불합리함을 피할 수 없는 라이헨바하의 분석은 결정적인 결함을 갖는 것이고, 그러한 불합리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라이헨바하가 제시한 부사어에 대한 분석함에 문장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결론적으로 라이헨바하의 설명이 갖는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빗슨은 행위 동사를 직접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변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5)와 (7)을 다음과 같이 각각 분석한다.

$$(5') (\exists x)[\text{날아갔다}(나, 우주선, x) \ \& \ To(\text{셋별}, x)]$$

$$(7') (\exists x)[\text{날아갔다}(나, 우주선, x) \ \& \ To(\text{저녁별}, x)]$$

여기서는 단칭명사에 대한 일상적인 외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5)와 (6)으로부터 (7)이 추론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데이빗슨의 주장이다.

그러나 데이빗슨의 이 논증은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들이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무릿매 논증(slingshot argument)을 통해서 진리 대응론을 비판할 때도 비슷한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은 동일한 사실과 대응한다고 가정한다. 일견하면 매우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가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가정에 대한 이병덕의 비판은 주목할 만하다. 이병덕은 사실의 동일성 기준에 의지하여, “두 개의 사실이 필연적으로 동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일한 사실이 아니다”⁸⁰⁾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동치인 다음 두 문장을 생각해보자.

(12) 눈은 하얗다(Snow is white).

(13) 디오게네스는 디오게네스이고, 눈은 하얗다(Diogenes = Diogenes & snow is white).

이 두 문장이 가리키는 사실은 디오게네스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세계에서는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은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는 데이빗슨의 가정은 문제가 있다.⁸¹⁾

마찬가지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술한다는 그의 가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건들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사건들이 시, 공간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돌이와 철이와 심하게 싸웠다”와 “순이는 순이고 돌이는 철이와 심하게 싸웠다”는 논리적으로 동치이지만 필연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데이빗슨의 라이헨바하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고, 어떤 문장이 행위를 기술할 때, 문장의 일부가 그 사건의 발생을 말해주고 있다는 데이

80) 이병덕 (2002), 543쪽.

81) 바와이즈와 페리도 비슷한 이유로 데이빗슨의 무릿매 논증을 비판한다. 그들은 데이빗슨의 논증이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은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J. Barwise and J. Perry (1999) 24-26쪽을 참조할 것.

빗슨의 해석은 직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그의 분석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이 비판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

데이빗슨의 해석이 갖는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부사어가 문장에서 매우 다양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즉 행위를 서술하는 문장에 사용되는 부사는 여러 가지 의미론적 기능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 히긴보담(J. Higginbotham)은 행위 문장에서 부사어의 다양한 용법에 주목하여 적어도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용법을 제시한 바 있다.⁸²⁾ 그런데 데이빗슨은 이러한 부사어의 다양한 용법의 차이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적어도 다음 문장에서 사용되는 부사어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존은 이상하게 노래했다 (John sang strangely).

(13) 이상하게도 존은 노래했다 (Strangely, John sang).

이 두 문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부사 'strangely'는 그 의미론적 역할이 다르다. (12)는 존이 노래를 했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manner)이 이상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사어가 이렇게 사용된 것을 방식 용법이라고 하자. 반면, (13)은 존이 일반적으로 노래할 상황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노래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발생한 사실이 일상적이지 않고 기이함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사용된 부사어는 사실(fact)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동일한 부사어가 방식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와 사실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의미론적인 차이 외에도 논리적으로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방식 용법으로 부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의 명사구가 공외연적인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도 진리값에 변화가 없지만, 사실 용법의 경우는 그러한 외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어떤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여왕이 먼저 말을 시키지 않았는데, 남자가 여왕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기는 관습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존은 여왕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자. 다음의 두 문장을 생각해 보자.

82) J. Higginbotham(1989)에서 그는 부사어가 사용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방식 용법과 주제적(thematic) 용법, 그리고 양화적 혹은 빈도 용법과 접속사적 용법이 그것이다.

- (14) 존은 무례하게 여왕에게 말을 걸었다 (John spoke to the Queen rudely).
- (15) 무례하게도 존은 여왕에게 말을 걸었다 (Rudely, John spoke to the Queen).

(14)에서 사용된 '여왕'이라는 단어를 그것과 공외연적 용어인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부인(the woman next to him)'으로 대체해서 얻어진 다음 문장은 참이다.

(14') 존은 무례하게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15)의 경우는 그러한 외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즉 다음 문장은 참이 아니다.

(15') 무례하게도 존은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왜냐하면 (15')은 적어도 대언적(de dicto) 해석에서 존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부인이 누구든지, 그 부인이 여왕이 아니라고 해도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무례하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15)와 진리값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⁸³⁾

그러나 데이빗슨은 분명히 (12)에 대해서는

(12') (∃x)[Sang(John, x) & strange(x)]

라고 분석하겠지만, (12')이 (13)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12')은 (12)에 대한 분석인지 (13)에 대한 분석인지 애매하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빗슨은 부사어의 방식 용법과 사실 용법의 차이를 간과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그의 분석은 사실 용법의 부사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임에 분명하다.

83) 방식 용법으로 부사어가 사용되는 경우 명사에 관한 외연성은 보장되지만, 그렇다고 문장에 관한 외연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산소 호흡을 하는 모든 존재는 쌀밥을 먹고 그 역도 성립한다고 하자. 그러면 "철이는 산소 호흡을 한다"가 참이라면 "철이는 쌀밥을 먹는다"는 참일 것이다. 그러나 철이가 육상 경기에 참여한 직후 "철이는 가쁘게 산소 호흡을 한다"가 참이라고 "철이는 쌀밥을 가쁘게 먹는다"가 참인 것은 아니다.

III. 사실 용법에 대한 페리적 분석

바와이스와 페리의 상황 존재론에 호소하여 사실 용법으로 사용된 부사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상황(situation)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실재(reality)는 상황으로 구성된다. ... 우리는 항상 상황 속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발생하도록 하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 상황이론(Theory of Situations)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추상적 이론이다.⁸⁴⁾

“상황”이라는 말은 일상 언어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정적인 상황, 즉 사태(states of affairs)를 가리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보다 동적인 상황, 즉 사건(event)을 가리키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 책에서 우리는 그 용어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 용어에 대한 또 다른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상황(real situations) -세계의 일부-과 추상적 상황(abstract situations) -실제 상황을 표상하기 위해서 상황 의미론에서 사용되는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의 구분이 그것이다.⁸⁵⁾

그들의 설명을 정리하면, 상황이란 실제 세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다 친숙하고 실제적인 사건보다는 추상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폭탄이 터졌다면, 폭발이라는 사건이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볼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폭발과 같은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 사건은 무수히 많은 상황의 총합에 다름 아니다.

어떤 대상이 특정한 시각 T1과 T2 사이에 한 점 P1에서 다른 점 P2로 이동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 대상이 T1이라는 시각에 P1에 있었고, T2라는 시각에 P2에 있었음을 그리고 T1과 T2 사이의 어떤 시각에 P1과 P2 사이의

84) J. Barwise and J. Perry (1999) 7쪽.

85) 위의 책, 49쪽.

어떤 지점에 그 대상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그 대상이 T1에서 T2 사이에 P1에서 P2로 이동한 사건은 위의 모든 상황들의 총합으로 구성된다(86) 요컨대 상황은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사건의 존재는 그 사건을 구성하는 상황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어(R. Moore)는 “물리적 실체(material substance)가 대상을 구성하는 내용물인듯이, 상황은 사건을 구성하는 내용물”이라고 설명한다.(87)

이제 이러한 상황 존재론에 의존해서 행위 문장을 서술하는 부사어가 사실 용법으로 사용될 때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페리는 (1)에 대해서 “‘존스’는 존스를 가리키고, ‘토스트’는 토스트 조각을 가리키며, ‘버터를 발랐다’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적 행위를 가리킨다.”(88) 즉 이 문장은 두 개의 대상과 하나의 이항관계 술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두 대상은 관계 술어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상황 존재론에 따르면, 그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존스가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다는 사실과 관계되는가? 그 사건은 분명히 수없이 많은 복잡한 동작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그 사건은 존스의 팔, 버터, 토스트, 버터를 바르는 도구 등이 특정한 시각에 특정한 위치에 있음이라는 수많은 상황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수많은 상황들과 그 상황들로 구성되는 사건은 존스와 토스트 사이에 성립하는 버터를 바르는 관계라는 단일한(single) 상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요컨대 분명히 존스가 버터를 바르는 사건과 상황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행위를 서술하는 문장에 대한 데이빗슨의 분석은 그 관계를 매우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행위 혹은 사건을 진술하는 문장을 행위 혹은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을 상황 존재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장은 행위나 사건의 어떤 속성이 사례화(instantiate)된다는

86)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고딕체로 찍어진 ‘구성된다’는 것은 ‘consist of’의 번역어이다. 바와이스와 페리는 이러한 동사를 쓴 이유는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be’와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동일한 사건도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다른 작은 사건들로 구성되고, 따라서 다른 작은 상황들의 집합으로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타이타닉 호의 침몰’이라는 사건은 알려진 것보다 적은 수의 사상자를 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사건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황들의 총합이 곧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상황들의 총합이 사건을 구성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

87) R. Moore (1995), 166쪽.

88) J. Perry (1983) 2쪽. R. Moore (1995) 167쪽에서 재인용.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1)에서 그 문장은 '존스가 토스트에 버터를 바름'이라는 사건의 속성이 사례화된 것이다. 즉 데이빗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문장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은 '존스가 토스트에 버터를 바름'이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 전체가 기술하는 상황은 '존스가 토스트에 버터를 바름'이라는 속성이 사례화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페리의 설명에 따라 이를 해석하면, 이 문장 전체는 '존스가 토스트에 버터를 바름'이라는 사건을 구성하는 많은 상황들을 사례화하는 것이다.

이제 앞에서 구별했던 방식 용법의 부사와 사실 용법의 부사가 사용된 문장 (12)와 (13)을 다시 생각해 보자. (12)처럼 방식 용법의 부사가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바와이스와 페리는 데이빗슨의 분석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즉 (12)는 존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그 문장의 부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부가적 술어로 기능해서 그 사건이 이상하게 발생했다고 해석한다. 존이 이상하게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단 하나의 사건, 그 사건은 이상한 성질을 갖는 그런 사건이다. 그러므로 바와이스와 페리도 (12)에 대한 데이빗슨의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용한다:

(12') $(\exists x)[\text{Sang}(\text{John}, x) \ \& \ \text{strange}(x)]$

그러나 문제는 (13)에 있다. 존이 노래를 부르는 사건 그 자체는 보통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존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이 의미하는 바이다. 즉 (13)은 존이 노래를 부름이라는 사건의 속성이 사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이상함을 서술하는 것이다. 결국 '이상하게'라는 부사는 상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이를 정식화하기 위해서 상황을 존재론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참인 명제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사실'이라고 하자. 이 '사실'이라는 관계는 일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와 달리, 첫 번째 논항으로 단칭용어를 갖고 두 번째 논항으로 정식을 갖는 연산자이다. 그러면 우리는 (13)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3') $(\exists y)[\text{Fact}(y, (\exists x)(\text{Sang, John, } x)) \ \& \ \text{Strange}(y)]$

이 정식이 뜻하는 것은 “존이 노래를 부름이라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대응하는 사실이 있으며, 그 사실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행위문장을 사실용법으로 수식하는 부사어는 세계를 구성하는 상황들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IV. 맺음말

부사어가 수식하는 행위문장의 의미론적 분석을 사건을 양화하는 문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데이빗슨의 시도는 몇 가지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첫째 그가 그러한 해석을 제시한 이유는 (2)와 같은 부사어로 수식되는 행위 문장은 (1)과 같이 부사어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문장을 함축함을 논리적으로 보여 줄 수 있었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의 분석은 그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모든 경우에서 다 보여줄 수는 없었다. 둘째 그의 분석은 행위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기능적 다양성을 간과했다. 방식 용법으로 사용된 부사어에 대한 분석으로는 그의 분석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용법으로 사용된 부사어를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행위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는 적어도 방식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와 사실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방식 용법으로 사용된 부사어는 데이빗슨의 분석을 수정한 파슨즈의 분석을 받아들여야 하고, 사실 용법으로 사용된 부사어는 상황 존재론에 근거하여 세계를 구성하는 상황들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참고문헌

- 이병덕, (2002) "Davidson's Slingshot Argument Revisited", Dialogue XLI.
- Barwise, J. & J. Perry (1999) Situations and Attitudes, (California, Stanford: CSLI Publications).
- Davidson, D. (1980) Actions &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Davidson (1980).
- Higginbotham, J. (1989) "Elucidations of Mean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Kluwer Publishing Co.).
- Lewis, D. (1975) "Adverbs of Quantification" In I. Keenan (ed.) Formal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R. (1993) The Meaning of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 Montague, R. (1974) Formal Philosoph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Moore, R. (1995) Logic and Representa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 Parsons, T.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Cambridge: MIT press).
- Perry, J. (1983) "Situations in Actions", unpublished manuscript.
- Reichenbach, H.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Macmillan Co.)